

AUDIO PHYSIC YARA MONITOR SPEAKER SYSTEM ₩1,250,000

맑고 깨끗한 재생음 밸런스도 뛰어난 편

최근 국내 시장에 새로운 제품군을 선보이며 활발하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오디오 피직이 이번엔 소형 북셀프 타입의 스피커를 발표했다. '야라'는 북미 인디언 언어로 '물'의 여신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같은 명칭으로 선보인 AV 스피커 시스템에서 리어용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한다.

동사에서는 이 정도 크기의 소형 스피커를 3종류 생산하고 있는데, 본기가 가장 막내에 속하는 모델이다. 더 이상 작을 수 없는 콤팩트한 사이즈에 유닛이 전면은 꼭 채운 전형적인 소형 스피커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성능만큼은 상당히 뛰어나다.

본기는 동사의 중형 스피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측면 우퍼가 없는 데다가 사이즈가 워낙 소형이기 때문에 절대적 양감이나 스케일의 측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릿결은 조금 가늘고 저역은 양감 측면에서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탄력과 절제감은 매우 뛰어나다. 소리의 흐름에서도 중고역 쪽이 돋보이면서도 날카롭거나 뻗치는 면이 없는데, 의외로 중역의 표현력이 단단해서 소리와 음악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음

색은 중립적이면서도 조금 차가운 느낌이지만 이 부분은 전원부가 탄탄한 진공관 앰프와의 매칭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아노는 명징하지만 울림은 조금 딱딱한 느낌이다. 에이징이 덜된 탓으로 보이지만 소형의 모니터 스피커에서 흔히 보는 성향이기도 하다. 반면에 강음에서 약음까지 소리의 흐름을 잘 포착하는 등 탄력 있고 깔끔한 표현력은 동사 제품의 일관된 성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본기는 중립적 음색, 적절한 밸런스, 매칭에 따른 재생음의 차이에 민감하다는 면에서는 모니터적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모니터 스피커라고 할 때 떠올리는 예리한 해상력이나 무덤덤한 재생음, 그리고 무척부취의 소릿결보다는 소리와 음악의 조화와 어울림을 맛갈스럽게 들려주는 점에서는 음악 감상에 부족함을 느낄 수 없다.

아무래도 사이즈에서 오는 제약 때문에 풍부한 저역은 양보해야 하고 대편성 재생도 불만족스럽지만, 음량을 좀 줄이고 듣는다면 특별히 귀에 거슬리거나 피곤하게 느껴지는지는 않는다. 공간감과 스케일도 상당해서 작은 공간에서 사용하더라도 별 불만을 찾기 어렵다.

한마디로 가격에 비해서 워낙 성능이 좋기도 하지만 절대적 성능의 측면에서도 어느 한 구석 소홀한 데가 없는 뛰어난 제품이다. 맑고 깨끗한 재생음을 기반으로 음악의 갈무리에 능한 소형 스피커를 찾는 분에게 추천하고 싶다. (정승현)

작은 체구에 비해 당당한 소리가 들보여

대단히 자그마한 체구의 북셀프형 스피커이다. 특히 옆면의 길이에 비해 폭이 무척 좁아 정면에서 보면, 더 작아 보인다. 너무 작아 제대로 소리가 날까 의문이 들 정도다. 하지만 '비르고 당'이 있을 정도로 국내 오디오



●구성:2웨이 2스피커 ●인클로저:밀폐형 ●사용유닛:우퍼 15cm 콘형, 트위터 2.5cm 돔형 ●주파수 특성:60Hz~33kHz ●임피던스:8Ω ●감도:88dB ●크기:W15×H31×D20.1cm ●무게:4.8kg ●수입원:다용(02-587-7300)



시장에서 그 잔가를 높인 바 있는 오디오 피직사의 제품이기도, 기대되는 마음이 컸다.

시청에는 테논의 PMA-SA1 인티앰프와 DCD-2000AE CD플레이어가 동원되었다. 먼저 해금 연주자 꽃별의 '도라지'를 들어 보았다. 작은 스피커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당당한 소리를 낸다. 그녀의 연주가 갖는 친숙한 느낌이 그대로 전달될 뿐만 아니

라, 일명 '깡깡이'라고도 불리는 해금 특유의 애처로운 선율도 잘 살아난다. 빌 에반스 트리오의 '산타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에서도 개리 피코크의 콘트라베이스를 뜯는 소리가 질감있게 재현된다.

또한 패트리시아 바버가 부른 '로라'에서도 그녀의 율조리는 듯한 호소력 넘치는 보이스가 잘 느껴지고, 로이 하그루브가 주도

한 프로젝트 그룹 RH 팩터의 앨범 '하드 그루브'의 타이틀 곡을 들을 때도 복잡한 연주가 크게 영키치지 않고 재생된다.

전체적으로 큰 불만이 느껴지지 않는 스피커이다. 다만 한 가지 트집을 잡는다면 울림통이 작기 때문인지 저음이 쪽 펼쳐 깔리는 느낌이 다소 부족했는데, 이 역시 가격을 고려하면 지나친 욕심이라. (채창균)